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저널

GFEZ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Journal
www.gfez.go.kr

Vol. 68
SUMMER 2018



Issue in GFEZ

광양만권의 정주여건을 책임지는 신대배후단지와 선월하이파크단지

Issue Now
4차 산업혁명의 종착역, 스마트 시티

GFEZ People
선월하이파크단지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중흥건설의 이야기

GFEZ Info
GFEZ 입주기업 인력난의 해결책, 기업 맞춤형 One-Stop 인력양성 사업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Cover Story

최첨단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투자자와 외국인 정주를 위한 교육, 의료, 레저 등 완벽한 주거환경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새바람을 맞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여 이제 최첨단 주거환경으로 거듭나 더욱 안락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CONTENTS

Summer 2018 Vol. 68

Issue in GFEZ

광양만권의 정주여건을 책임지는 신대배후단지와 선월하이파크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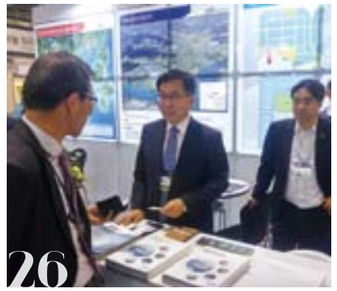
14



04



20



26

도입부

04 **Greeting**
새 희망의 근거는 늘 우리 자신입니다

경제동향

06 **Issue Now**
4차 산업혁명의 종착역, 스마트 시티

08 **Issue Inside**
한국의 도시는 어디까지 스마트해졌을까?

10 **Issue Outside**
세계 각국에 도입되는 스마트 시티

12 **Issue Talk**
스마트 도시혁신을 위한 리빙랩

투자유치

14 **Issue in GFEZ**
광양만권의 정주여건을 책임지는
신대배후단지와 선월하이파크단지

18 **GFEZ Project**
선월하이파크단지에도
스마트 바람이 불 수 있을까?

20 **Invest Inside**
광양만권의 명품택지로 거듭날
선월하이파크단지의 행보

22 **Invest Info**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24 **GFEZ People**
선월하이파크단지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중흥건설의 이야기

GFEZ 소식

26 **GFEZ Now**
2018년 상반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활동

28 **GFEZ News**
2018. 4~6월 중요뉴스

30 **GFEZ Info**
GFEZ 입주기업 인력난의 해결책,
기업 맞춤형 One-Stop 인력양성 사업

32 **Review**
독자코너

33 **Advertisement**
입주기업 광고
㈜엠티에스 / ㈜코일렉트로드 / ㈜유원산업기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저널 Vol. 68

발행인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편집인 (주)DNS

발행일 2018년 6월 29일 (통권 제68호)

발행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061-760-5091~3)

간행물 등록번호 전남, 바00035

홈페이지 www.gfez.go.kr



COVER STORY

최첨단 주거공간으로 거듭날 GFEZ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은 투자자와 외국인 정주를 위한 교육, 의료, 레저 등 완벽한 주거환경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새바람을 맞아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하여 이제 최첨단 주거환경으로 거듭나 더욱 안락한 생활을 보장합니다.



새 희망의 근거는 늘 우리 자신입니다

희망의 바깥은 없다
새로운 것은 언제나 낡은 것들 속에서 싹튼다
얼고 시들어서 흙빛이 된
겨울 이파리 속에서
씀바귀 새 잎은 자란다
희망도 그렇게 쓰디쓴 향으로
제 속에서 자라는 것이다
… (후략)

도종환 시인의 시 '희망의 바깥은 없다' 앞부분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새 사령탑을 맡게 된 저는 이 시로 첫인사를 대신하려 합니다. 광양경제청이 개청한지 올해로 14년. 우리나라가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도약함에 광양만권이 앞장설 수 있도록 광양경제청이 선두에서 노력하였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여정으로, 어엿한 성과도 내었지만 묵직한 곡절도 겪었습니다.

새희망과 재도약을 위한 힘이 필요한 시간, 그 시점에 합류한 저는 막중한 책임감과 가슴 뛰는 설렘을 동시에 느낍니다. 세상사 무엇이든 고비가 없을 수 없음을 잘 압니다. 시인은 시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많이 고뇌하고 가장 많이 싸운 곪은 상처, 그 밑에서 새살이 돋는다'고 말합니다. 공감합니다. 새 희망의 근거는 늘 우리 자신입니다. 한때의 혁신이었을 낡은 것들과 많이 싸우고 많이 고뇌하겠습니다. 새살 돋은 자리가 새 희망의 근거가 되도록 저와 우리 조직을 성찰하고, 매일매일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요즘 광양경제청은 세풍, 율촌, 대송과 같은 산업단지의 개발과 분양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 이후 IT의 중요성만을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4차 산업혁명의 실현 그 근간에는 제조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주력산업인 제조업을 심화시켜 광양만권이 차세대 제조업 메카로 거듭날 수 있게,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을 유치하겠습니다.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산업단지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시는, 또는 그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배후도시 조성에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선월하이파크단지와 신대배후단지와 같은 주거단지가 경제자유구역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는 배후단지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낼 수 있도록, 향후 에너지와 물자를 획기적으로 절약하는 친환경 스마트시티로 성장시키겠습니다. 그리하여 광양만권이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닌 산업과 사람의 공존을 앞서서 보여주는, 미래가치 창출의 발신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 김갑섭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GFEZ) 홍 보 사 진 공 모 전

2018.2.12~9.21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Gwangyang Bay Area Free Economic Zone Authority

공모전 개요

공모대상 전 국민 (제한없음)
공모기간 2018. 2. 12. ~ 9. 21.
주제 GFEZ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4계절 테마 사진
- 광양지구, 율촌지구, 신덕지구, 하동지구, 화양지구, 경도지구
심사기준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매력을 잘 표현하고 홍보 활용도가 높은 작품
- 기존 홍보사진과 유사하지 않은 독창적인 작품
결과발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10월중 예정)
www.gfez.go.kr
문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홍보사진공모 담당자
☎ 061-760-5121

응모방법

전자우편(ssww33@korea.kr)을 통한 접수
제출양식 참가신청서, 동의서, 사진파일(JPG)
사진파일 규격 JPG파일로 사이즈 2,200x3,200 Pixel
전자우편 제목 및 파일명 '성명-작품명(촬영지역/계절)'으로 제출
출품수 1인당 5점 이하의 미발표작
※ 출품사진은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최종입상작에 한해서만 활용
※ 동일인 출품작이 다수 입상할 경우 2점까지만 선정

시상내용

구분		선정 작품수	시상금
GFEZ 홍보 사진	합 계	15점	730만원
	대 상	1점	200만원
	최우수	1점	100만원
	우 수	2점	각 50만원
	입 선	11점	각 30만원

유의 및 기타

유의사항
(다음 사항의 경우 당선을 취소함)
- 본인이 촬영하지 않았거나 다른 공모전에 이미 공개한 사진
- 자연 훼손, 통제구역 출입 등 위법하여 촬영한 사진
- 원본과 다르게 조작, 합성하였거나 과도하게 색채가 변경된 사진
기타사항
- 선정 작품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영구 귀속되며, 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작성의 권리가 포함됨
- 출품작품에 저작권 · 초상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상금 반환 및 입상 무효와 함께 관련된 모든 법적 책임은 출품자에게 있음
- 접수된 작품의 세부 심사기준 및 과정은 공개하지 않으며, 상기 시상 내용은 출품 수량과 작품 수준에 따라 조정 가능함

GFEZ 홍보사진 공 모 전

글 편집실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해결과제와 그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4차 산업혁명의 종착역, 스마트 시티

4차 산업혁명은 ICBM*기술[1]의 급부상과 함께 대두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변화는 스마트 홈에서 스마트 시티까지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함으로써, 가정은 물론 도시 전체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을 도모하여 우리의 주거생활을 변화시키게 될 것이다.

우리 집이 얼마나 스마트해질까

스마트 홈은 IoT 기술을 기반으로 가전제품 간의 연결을 넘어 사용자와의 연결을 통해 사용자의 상황에 따라 자동 실행이 되는 지능화된 홈 시스템을 말한다. 단순히 원격으로 기기의 전원을 끄고 켤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닌, 가정과 가전제품에 고도화된 ICBM기술이 접목되어 사물과 사람이 초연결된 주거공간을 뜻한다.

스마트 홈 서비스는 편의, 에너지, 안전 등 세 가지 부문에서 가장 큰 성장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세탁기에 세제와 유연제를 가득 넣어 놓으면 세탁물의 양에 맞춰 자동으로 적량을 투입하게 되고, 세제의 잔량을 감지하여, 빅데이터를 통해 사용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세제를 자동으로 주문하게 된다. 맞벌이 가구,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비추어볼 때, 향후 이러한 스마트 홈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위와 비롯한 일련의 스마트 홈 서비스를 통해 가사활동 시간을 17%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예로 퇴근 시, 자동차 시동을 걸고 네비게이션을 집으로 설정하면 도착시간에 맞춰 미리 집 안의 냉난방기가 가동되어 더 쾌적한 상태의 집으로 귀가하는 시스템도 보편화될 것이며 또한, 냉난방기 가동 시, 사람의 수와 상태를 감지해 온도를 자동으로 설정하여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가 가능하게 되며, 이런 자동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통해 기존보다 약 20%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효율적인 전력관리를 통하여 남은 전력은 매매할 수도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가스누출 여부를 파악하고 가스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과 출입문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외부 침입자 발생 시 자동으로 보안요원을 호출함으로써 가정의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 관련 서비스의 확대도 스마트 홈의 발전과 함께 기대되는 부분이다.



스마트 시티 안에서의 삶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ICMB기술의 인프라를 스마트 서비스라고 한다. 이러한 스마트 서비스가 산업군별로 모였을 때, 스마트 인더스트리(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헬스 등)가 형성된다. 그리고 이러한 각 산업별 스마트 인더스트리가 도시 안에 모이게 되면 비로소 스마트 시티가 형성된다. 즉, 스마트 시티는 도시 안의 모든 스마트 인더스트리를 자동으로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스마트 시티는 4차 산업혁명의 최종 단계이며, ICBM기술의 최종형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스마트 시티의 기능은 매우 다양하며, 시민들의 모든 생활양식에 관여한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분야의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공될까?

먼저, 스마트 시티는 안전도시로써 재난과 범죄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 현재 CCTV를 활용한 범죄 검거율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CCTV 설치의 수요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지자체 재정상, 이러한 CCTV 수요를 모두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스마트 시티 안에서는 이동식 CCTV를 설치하여 스스로 수요가 있는 지역을 파악하고 이동함으로써, CCTV 추가설치 비용을 절감하고 시민들의 요구도 충족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도시 안에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대응해, 도시 안의 IoT 장비로 재난 상황정보를 수집하여, 재난구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기존의 고정적인 대피경로가 아닌, 상황에 맞는 대피경로와 행동요령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한편, 시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로는 교통과 환경, 도시기반 서비스 등을 제공하게 되는데, 먼저 교통 관련 서비스로는 실시간으로 인근 지역에 주차가능한 공간과 관련 정보를 모바일이나 내비게이션과 연계하여 제공한다. 그리고 자율주행차는 도로 위의 모든 자율주행차와 도로에 설치된 IoT 장비들을 통해 도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기존과 다르게 시민들은 도시 소유의 차량을 공유하고, 차량이 필요할 때만 도시 소유의 차량을 사용하여, 차량을 개인 소유했을 때 들었던 유지·관리 비용을 절약하게 된다. 이외에도 대기질 관리와 문화재 관리 등 도시의 모든 시설을 관리하게 되며 이로써 스마트 시티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며, 사물과 사람이 연결된 초연결, 초지능 도시를 구축하게 될 것이다.

스마트 홈과 스마트 시티, 무엇이 관건일까

스마트 홈과 스마트 시티에서 제공되는 건강관리, 교통 등과 같은 모든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그렇기에 이와 같은 실시간성 확보를 위해서는 메인 서버의 데이터 처리, 네트워크 속도가 관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기준이 될 표준 플랫폼이 필수이다. 프로토콜 언어 등의 차이로 호환이 되지 않아, IoT 장비들끼리 모은 정보를 공유 할 수 없다면, IoT 기술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중소기업은 여러 대기업과 통신사가 개발한 많은 플랫폼에 맞추어 제품을 개발하다 보면, 경제적 부담이 가중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통신사, 그리고 정부와 연구기관 또한 협력하여, 기준이 될 표준 플랫폼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스마트 서비스는 악의적인 해킹 공격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다. 스마트 시티의 보안이 무너지면 도시 전체에 큰 피해가 올 것을 유념하여, 이에 보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지속적인 관리, 보강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 처리에 관한 규제 역시 개선을 필요로 하여 스마트 홈과 스마트 시티의 성숙화를 위한 다방면의 고민이 필요하다.

스마트 홈과 스마트 시티 조성에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기술자들에게만 기술의 지속적인 보완과 발전을 일임할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로 우리의 삶이 좀 더 풍요롭고 편리하며 안전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산업통산자원부, '산업부가 바라본 4차 산업혁명 코리아루트' 산업통산자원부 2017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17 스마트 서비스 카탈로그', KLID, 2017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ICBM 현황과 스마트시티 구축방안', 『지역정보화 이슈 리포트』, KLID, 2016, 제6호〉

1)〈IoT(사물인터넷), Cloud, Bigdata, Mobile, 이 네 가지 기술을 이르며, 정보통신기술이 모든 산업과 융합되게 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국내 스마트 시티의 조성 현황과 전남권의 스마트 시티 발전 가능성은?

한국의 도시는 어디까지 스마트해졌을까?

유비쿼터스 기술을 이용한 유시티의 도입은 2004년부터 국내에서 실시되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유시티가 현재 조성 중인 스마트 시티의 전신이라 보고 있다.
그렇다면, 1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 한국은 유시티와 스마트 시티 사이, 어디쯤 와 있을까?



1)〈대용량 저온의 열원에서 열을 얻어 소용량 고온의 열을 취하는 경우와, 소용량 저온을 취하기 위해 대용량 고온의 장소에 열을 발산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으며, 본문에서는 대기와 해수의 온도차이를 이용한 히트펌프 방식〉
2)〈김귀진 기자, '순천시, 스마트 도시 만들기 박차' 광남일보, 2017. 12. 07일자〉

국내 최초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

2018년 1월 29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제4차 4차산업혁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면서, 스마트 시티 추진전략 안건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 과감한 규제개혁과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정부와 민간,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확립하여 5년 내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3대 전략을 세웠으며,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로 세종시 5-1 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를 선정하였다.

위원회는 백지상태에서 새롭게 조성하는 스마트 시티 시범도시인 세종시와 부산시에 1. 신기술의 테스트베드, 2. 도시 문제해결과 삶의 질 제고, 3. 혁신 산업생태계 조성, 이 세 가지의 개발 방향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그리고 두 시범도시를 플랫폼으로 삼아 차세대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등 공동선두 기술부터 자율주행차, 스마트에너지, AI,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체감기술까지 다양한 미래기술을 구현, 상용화시키며,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시티운영으로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산업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종시 5-1생활권은 행정, 연구, 산업 등이 융복합된 자족적인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당초 계획되었다. 이에 실시간으로 전력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 시스템(EMS), 지능형 전력계량 시스템(AMI) 등을 핵심으로 스마트 에너지 서비스를 구축한다. 또한 교통 부문에서는 자율주행 정밀지도, 3차원 공간정보시스템 등이 핵심인 자율주행 특화 도시를 조성하고 지속 가능케하여 경제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산의 에코델타시티는 워터시티라는 컨셉으로 계획되었으며, 이에 히트펌프 방식[1]을 이용해 에너지를 수급하는 수자원 관련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앞서 언급한 계획들을 2021년까지 실현하겠다고 밝혔으며, 세부적으로는 2019년 상반기까지 실시·설계하여 조성공사를 착수할 예정이며 준공되는 2021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광주·전남권의 유시티, 스마트 시티로

한국의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광주·전남지역 역시 아직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 초기 단계이지만, 2016년 7월 한국전력이 영국 엑센트리 사와 공동으로 나주(羅州) 빛가람 에너지벨리를 한국형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고 에너지 분야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여, 전남권의 스마트 시티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빛가람을 제외한 광주·전남권의 스마트 시티 관련 사업은 유시티(U-City) 사업에 집중되어있다. 유시티는 스마트 시티와 현재의 도시의 중간 단계로 보는 이들이 많으며, 스마트 시티처럼 도시의 전 분야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아닌, 특정 지역구의 정보 서비스, 개별 시설의 에너지 효율 관리 서비스 개발에 초점을 둔 사업이다. 스마트 시티의 단계적인 구축을 생각해 본다면, 현재 개발하고 있는 유시티 사업이 향후 스마트 시티 사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광주·전남권의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제시되어야 하며, 이를 단계별로 전략을 수립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단 도시생활형, 에너지절감형, 교통개선형, 환경보호형, 민생안전형을 핵심으로 하는 광주·전남형 스마트 시티 모형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 후, 스마트 시티 조성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반을 조성하고, 컨트롤 타워를 통해 사업을 총괄하여 사업에 참여하는 통신사, 대기업, 지역기업 등의 사업체와 지역민들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스마트 시티의 구축이 가능토록 해야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전남의 모든 지역을 아우를 수 있는 전남 통합적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순천, 상상이 현실이 되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

순천은 현재 2030년까지 '상상이 현실이 되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목표로 스마트 비전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옛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고,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진 조화 속에서 기술과 삶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지향이라는 생태도시에 최적화된 순천형 스마트 시티가 되는 것으로 조성방향을 설정했다.[2]

도입기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생태, 도심, 산단, 청사 4대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체감도 높은 서비스 제안을 위한 시민 거버넌스 구축과 '순천이여 스마트하라'는 구호와 함께 시민 체험 페스티벌을 개최할 계획이다. 확산기인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스마트 시티 사업분야를 생태, 관광, 교통, 에너지, 환경, 안전, 복지, 공공 8개로 확대하며, 커뮤니티와 스마트 시티 홍보관 등을 운영하여 스마트 시티 구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2026년부터 2030년은 고도화 시기로 스마트 시티 허브 구축을 최우선 목표로 하며, 새롭고 순천만의 독보적인 스마트 서비스 개발과 도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2030년까지 순천형 스마트 시티를 구현할 예정이다.

스마트 시티의 조성은 지역의 발전과 함께 그 가치를 더해간다. 다양한 설비가 모인 산업단지와 편리한 교통망, 많은 인구의 배후도시가 함께 있는 광양만권에서 향후 스마트시티가 조성되어 활성화된다면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과 편의가 제고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많은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이에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단계별 정책 수립과 더불어, 지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향집, 조상필, '광주·전남의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광주전남연구』, 광주전남연구원, 2017, 특집 4호〉

글 편집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같지만 다른, 나라별 스마트 시티 양상

세계 각국에 도입되는 스마트 시티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은 노후 도시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 재생사업의 일부로 스마트시티를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정부가 민간기업에 사업을 위임하여 스마트시티 구축을 실현하고 있으며, 유럽은 국가가 스마트시티 도입을 총괄하고 개별 도시는 구체적인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그 중 덴마크의 코펜하겐은 스마트 시티 인덱스 1위로 뽑히고 있으며, 또한 시카고는 한 발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스마트 시티 조성의 모범 사례로 뽑히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선구적인 기술이 두 도시를 스마트 시티 인덱스 1위, 스마트 시티 조성의 모범 사례로 불리우게 하였을까.



덴마크 코펜하겐

IoE는 사물과 사물을 연결해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점에서 사물지능통신(M2M)이나 IoT와 비슷하지만 이들보다는 더 확장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코펜하겐은 이러한 IoE기술을 중추가 되는, IoE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스마트 시티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IoE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사례인 돌 프로젝트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여러 실외 조명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술을 하나의 네트워크에서 통합하여, 해당 업계의 표준이 될 수 있는 통합된 플랫폼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전 세계의 조명사업에 차차 적용되며, 나아가 타 업계의 표준 플랫폼 조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코펜하겐이 스마트 인덱스 1위 도시라는 것을 방증해주고 있다.

핵심기술

- IoE(Internet of Everything, 만물 인터넷) : 사물과 사람, 데이터, 프로세스 등 연결 가능한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상호작용하는 것을 의미

적용사례

- 돌 프로젝트 (Doll Project) : 코펜하겐 서부의 앨버트슬런드 지역 내, 6마일 거리에 37개의 야외 LED등(燈)을 설치한 실외 연구소 / 설치된 가로등을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하나로 연결하고 네트워크상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또한, 가로등에 설치된 디바이스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여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제공, 열람이 가능

미국 시카고

한 발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시카고가 스마트 시티의 모범사례로 뽑힐 수 있었던 이유에는 AoT(Array of Things)기술의 도입에 있다. 시카고는 AoT를 통해 도시에서 발생되는 교통의 흐름, 날씨의 변화, 사람들의 움직임과 같은 모든 일들을 수치화, 데이터화 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활용하기 어려운 공공데이터를 위치기반 지능화 서비스를 실현해 도시개발에 관련된 정책연구, 환경, 시설 등의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좀 더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하여 도시 발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핵심기술

- AoT(Array of Things) : 사람의 움직임 등, 특정 활동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수집하는 대화형 모듈 센서의 네트워크 기술
  - → 개인의 건강 등에 국한되어 활용되었던 자기 수치화를 도시 수치화로 대폭 확장
  - → 수치화된 데이터를 지도상에 위치 정보와 함께 보여주는 위치기반 지능화를 실현

선진국과는 달리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도시의 급속한 성장을 위한 전략 혹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 시티 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은 각 도시마다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스마트 시티를 도입하고 있으며, 인도는 스마트시티 구축으로 도시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베트남 스마트 시티

베트남의 호치민시, 하노이, 다낭 등의 도시들은 도시기반 서비스와 이와 관련된 ICT기술 구축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각 도시마다 특정 목적을 가지고 스마트 시티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2020년까지 3개 이상의 스마트 시티를 완성할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예정일까지의 완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베트남은 여러 나라 기업의 컨소시엄을 받고 있으며, 한국기업 역시 껀터시와 메콩델타의 상품경쟁력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형태로 베트남의 간접적으로 스마트 시티 사업에 기여하고 있다.

- 호치민 : 스마트 시티 행정 센터, 정보통신 기술기반 설립
- 하노이 : 스마트 시티를 운영할 수 있는 고임금 직원 양성
- 푸꾸억 : 전자정부와 스마트 서비스에 의한 숙박 및 관리
- 껀터 : 무분별한 개발,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

인도 스마트 시티

인도 정부는 교통, 환경, 에너지 문제와 같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 전역에 걸쳐 100개 스마트 시티 조성 공약을 발표했다. 인도는 도시 인프라를 고도화하여, 인도 내에 100개의 스마트 시티를 조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그에 따른 경제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러나 인도에는 개발이 용이한 부동산 자원이 많지 않은 실정이다. 현제 이러한 난제들 사이에서 성공적인 신도시 개발의 대표사례로 뽑히는 팔라바시티 안에 조성 중인 스마트 시티가 주목받고 있다.

팔라바시티는 그린필드 형식으로 형성된 신도시로 입주민의 70%는 반경 10Km 안에 직장이 있는 중산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인도는 단순히 기술에만 초점을 둔 스마트 시티는 실패라고 보고, 팔라바시티의 스마트 시티는 기술 이전에 거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5-10-15 컨셉을 이어가는 스마트시티를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술보다 도로와 차량 그리고 기반 시설의 적절한 배치와 수 등과 같은 도시계획을 최우선으로 하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고자 한다.

팔라바시티 5-10-15 컨셉

- 5 : 매일 필요한 모든 것이 걸어서 5분 거리
- 10 : 3~4일 내에 필요한 모든 것은 걸어서 10분 내 거리
- 15 : 한 달 사이에 필요한 것은 걸어서 15~20분 거리

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성지은 연구위원

지역과 소비자가 중심이 되는 스마트 시티 조성의 방법론, 리뱅랩(Living Lab)

스마트 도시혁신을 위한 리빙랩[1)]



도시혁신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기술·인프라 중심에서 사람·서비스 중심으로, 정부 및 전문가 중심의 공급자 주도에서 지역사회 및 주민 중심의 수요자 주도로 변화하면서 참여형 혁신 모델인 '리빙랩'이 각광을 받고 있다. 암스테르담, 헬싱키, 바르셀로나 등 스마트시티 모범 지역에서도 민·관 협력모델, 시민주도의 혁신방식으로 리빙랩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사람을 위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리빙랩을 중요한 방법론으로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도시개발 사업은 정부와 기업 주도의 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공간개념의 부족, 과도한 구축 비용, 시민체감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ICT 인프라 구축, 첨단 기술의 시범 적용에는 성공했지만 시민과 공감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는 미흡했다는 것이다. 최근 스마트시티는 시민의 삶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성찰은 이를 압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리빙랩은 바로 이 그릇이며 스마트시티의 핵심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리빙랩은 주민·현장·지역 주도형 지역문제 해결 모델이자 지역혁신사업으로서, 사용자 주도형 테스트베드·실증 사업이자 스마트시티 구축의 방법론으로서 리빙랩이 강조되고 있다.

리빙랩 운영 목적별 주요 사례

운영 목적	사 례
기술·제품·서비스 사업화 및 비즈니스 전략	· 성남고령친화종합체험관 시니어 리빙랩 · 산자부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 전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사업 · 중앙소방학교 재난안전리빙랩 · 서울혁신센터 사회혁신 X 리빙랩 프로젝트 · 포항시 포항을 바꾸는 100일의 생활실험 · 대전시 센서기반 오정동 농수산물시장관리 리빙랩 · 대전 건너유 프로젝트
수요 구체화 및 커뮤니티 조직화·참여 전략	· 산자부 에너지기술 수용성 제고 및 사업화 촉진 · 사회적경제조직 및 시민사회 주도의 리빙랩 사업
테스트베드 및 실증사업	· 서울시 북촌 IoT 리빙랩 · 동탄 스마트 안전 융합신제품 리빙랩 사업 · 부산 IoT 융합 도시기반 서비스 구축 사업
지속가능한 시스템 전환을 위한 실험이자 전략적 니치	· 성대골 에너지 전환 리빙랩

〈자료: 성지은 외(2017)〉

리빙랩 방식을 활용한 스마트시티 정책의 성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중앙·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역할이 중요하다. 스마트시티 리빙랩은 기술개발, 도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는 개념으로 정책 방향 설정, 관련 주체들의 협력, 법제도 기반 구축 등 중앙·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특히 공공 및 빅데이터 정보의 공개·활용을 촉진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조례·규칙 개선이 필수적이다.

둘째, 리빙랩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한다. 리빙랩은 사용자와 개발자가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활동이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신뢰·지식·네트워크는 이후 이뤄지는 기술과 서비스 개발에 중요한 자산이 되면서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때문에 스마트시티 사업에서 기획하고 있는 리빙랩을 일회적인 프로젝트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노하우·시설·네트워크를 축적해 나가는 리빙랩 플랫폼으로서 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시티 전체가 리빙랩이 된다.

셋째, 공공적이고 조직화된 시민조직의 참여가 필요하다. 일회적인 참여나 설문 형태의 단순 조사를 통해서는 시민들의 내밀한 수요를 파악하기 힘들며 개인들의 사적 민원만 파악할 가능성이 높다. 혁신적 아이디어를 스케일업하고 공공적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민교육·참여 프로그램 운영,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 공공성과 전문성이 있는 사용자 및 사회혁신조직의 참여가 필요하다.

넷째, 지속가능한 사회·기술시스템으로의 전환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단기적 사업을 장기적인 전환 노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여러 도시개발 사업이 시스템 전환의 관점이 없어 대증적인 문제해결 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첨단기술 구현, 부동산 개발 등의 경제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경제발전·사회통합·환경보호를 포괄하는 지속가능한 전환에 대한 전망이 부족했다. 리빙랩 기반 스마트시티를 통해 지역문제 해결, 자원순환, 지속가능한 발전이 통합된 장기 비전을 가지고 도시 시스템 혁신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리빙랩은 시스템 전환의 전망을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하는 '전환랩이 된다.

다섯째, 도시개발을 넘어 과학기술, 환경, 에너지, 산업 등 관련 정책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스마트시티 사업이 국토부 단독이나 부처별 백화점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도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쓰레기·교통·에너지 등 도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부처 간, 산·학·연·관 간 연계·협력은 물론, 전문가와 시민사회 간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참여적 혁신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협력적·참여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사회혁신 기술도 도움이 될 수 있다.

1)〈리빙랩의 사전적인 의미로는 일상생활 실험실, 일상생활 속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 진행'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에서 사용자가 주도적으로 새로운 정책, 제도, 기술, 제품을 만들고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 성지은·송위진·정병걸·최창범·윤찬영·정서화·한규영(2017), 「국내 리빙랩 현황 분석과 발전 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 보고서.
성지은·이유나(2018), 「스마트시티 리빙랩 사례 분석과 과제」, STEPI 이슈 보고서. 제47호.
성지은(2018), "리빙랩 기반 스마트시티 성공하려면", 디지털타임스(2018.4.22.) 기고문.
신우재·김도년·조영태·박신원(2015), 「U-city의 국제 경쟁력 구축을 위한 Smart City와의 차이 점 비교 분석 연구」, 한국도시설계학회지, 제16권, 제5호.
이재용·장환영·김걸(2014), 「U-City의 성과진단과 미래 발전방향 연구석 연구」, 한국도시지리학 회지, 제17권, 제2호〉



글 홍보마케팅팀

더 나은 정주여건 조성으로 광양만권의 투자유치를 지원하는 신덕지구

광양만권의 정주여건을 책임지는 신대배후단지와 선월하이파크단지

순천시 해룡면 일원에 위치한 신덕지구는 광양만권의 우수한 인프라인 광양항 및 여수국가산업단지, 율촌산업단지와 인접하고 있다는 지리적인 특징 때문에 KTR과 기능성 화학클러스터로 기대를 모으는 세풍산업단지와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된 해룡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고 있다. 하지만 신덕지구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이주하는 투자자들과 근로자들에게 더 나은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신대배후단지와 선월하이파크단지 두 곳을 개발하고, 대규모 주거를 비롯한 교육, 의료 등 각종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서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고자 한다.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 신대배후단지

신대배후단지는 계획인구 30,000명, 총 5.600억 원의 (보상비 1,818억, 공사비 2,795억, 기타 987억) 사업비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진행 중에 있다. 신대배후단지는 크게 주거용지(0.66㎢), 상업·업무·근린시설용지(0.10㎢), 산업물류시설용지(0.02㎢), 체육시설(0.84㎢), 공공용지(1.28㎢)로 나뉘며, 주거지역은 현재 9개 단지가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그 중 7개 단지가 준공이 완료되었다.

신대배후단지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단지 내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외국인전용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으며 또한, 질 높은 생활환경을 위해 75,468㎡의 부지면적에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진료시설을 갖춘 국내의료기관을 설립하여 배후단지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리고 137,596㎡의 면적의 부지에 국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외국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 국제 교육기관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들도 입학 가능하도록 하여 글로벌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지역 학생들의 국제교류 또한 강화될 수 있도록 할 전망이다. 계획 중인 외국인 교육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으로 현재 초등학교 3개, 중학교 1개가 개교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 3월에 중학교 1개소가 추가로 개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신대배후단지 거주민 증가에 따른 영아(0~2세) 보육수요에 대비하여, 공공청사용지에 국·공립 보육시설 입지가 가능토록 개발계획을 변경하여 보육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대배후단지는 국제적 비즈니스 환경 조성이외에도 친환경적인 주거공간을 목표로도 계획 되어있다. 이에 배후단지 내에 7등급 이상의 자연녹지 원형을 보존하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주변에 녹지와 근린공원을 조성하며 배후단지의 서북 측에서 동남 측으로 자연유하(自然流下)하는 유수지를 활용한 수변공원 또한 조성하여 거주민에게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미강서원과 같은 순천시의 역사문화 요소를 반영한 경관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 거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취미와 여가생활을 위한 영화관, 공공도서관 등이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약 0.8㎢면적의 대중제 골프장을 통한 레저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다.

신대배후단지 토지 이용 계획도



범 례

구 역 계	상 업 용 지	근 린 공 원	연 결 녹 지	오수펌프장
단 독 주 택	공 공 시 설	수 변 공 원	학 교	보행자도로
블록형단독주택	외국의료기관	하 천	외국교육기관	건강생태회랑
중 층 APT	문 화 시 설	유 수 지	유 치 원	단지외진입도로
고 층 APT	골 프 장	교 통 광 장	주 차 장	
근린생활시설	산업유통시설용지	경 관 광 장	수 도 시 설	
준주거용지	어 린 이 공 원	완 충 녹 지	주 유 소	

신대배후단지는 이미 9개의 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단지 내 개발이 가능한 부지는 모두 소진되었다. 이에 따라 인접하여 위치한 선월하이파크단지의 개발에 착수하여, 신대배후단지로는 부족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 향후 배후도시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코자 한다.

신대배후단지의 뒤를 이을 최고의 주거환경, 선월하이파크단지

선월하이파크단지는 면적 982,117㎡ 부지에 총 2,638억 원을 투입하여 조성을 계획 중에 있다. 신대배후단지에 이어 광양만권의 새로운 주거단지로 각광받을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질 높은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이를 통한 주변의 도시개발을 선도하고자 하며, 건설활동으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토지이용계획은 대략적으로 주거용지 약 0.31㎢, 공공용지 약 0.6㎢, 상업·업무·근린시설용지 약 0.07㎢로 나누어져 있으며, 주거용지는 인구 16,300명(6,024세대 / 가구당 2.7인 기준)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이는 67,191㎡ 면적의 단독주택 부지에 556명(206세대)을, 면적 247,863㎡의 공동주택 부지에 총 15,744명(5,818세대)을 수용하게 된다. 그리고 공공용지에는 47,376㎡에 초등학교 2곳, 중·고등학교 1곳과 7,000㎡의 부지에 영유아를 위한 유치원 등의 교육시설을 조성한다.

한편, 단지 주변이 공업단지임을 고려하여, 선월하이파크단지 전체를 감싸는 완충녹지를 조성하며, 단지 내 유동인구가 많은 공공시설과 주거지역 주변에 113,232㎡의 면적의 공원을 형성할 예정으로, 근린공원 2개, 소공원 1개, 그리고 신대배후단지에서 이어지는 하천을 활용한 수변공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경관녹지와 단지 내의 시설 간의 보행동선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연결녹지를 조성하여, 선월하이파크단지 전체에 그린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입주민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선월하이파크단지에는 용수, 하수처리, 에너지, 전력 등의 기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선월하이파크단지 토지 이용 계획도



범례

	구 역 계
	단독주택용지
	아파트건설용지(중층)
	아파트건설용지(고층)
	근린생활시설용지
	주 유 소
	종 교 시 설
	일반상업용지
	업무시설용지
(교)	교 통 광 장
(어)	어 린 이 공 원
(근)	근 린 공 원
(수)	수 변 공 원
(소)	소 공 원
(유)	유 수 지
(연)	연 결 녹 지
(경)	경 관 녹 지
(완)	완 충 녹 지
	공 공 공 지
	학 교
(공)	공 공 청 사
(문)	문 화 시 설
(방)	방송통신시설
	하 천
	오수중계펌프장
	주 차 장
	보행자전용도로

먼저 대룡배수지에서 상사분기점 및 해룡분기점을 지나는 신대배후단지의 넓이 700mm의 분기관을 통해 일평균 5,053㎥, 일최대 6,618㎥의 생활용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하수는 빗물을 신대천과 선월천으로 방류하는 자연유하식의 우수관거(雨水管渠)를 통해 처리할 예정이며, 그리고 오수(汚水)의 경우 빗물과 분리하여 오수중계 펌프장을 통해 일최대 4,884㎥를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또한 전남 도시가스사와의 협의를 통해 난방 및 급탕열원으로 LNG가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전력판매사업단과 협의하여 주거용 전력 12,459KVA[1], 상업 및 기타시설 47,344KVA, 총 59,803KVA의 전력수요(최대전력부하 42,380KVA)를 충당하여 단지 내 전력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거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1)〈전력 값을 구할 때는 '전압(V) x 전류(A)'라고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렬회로의 전력을 구할 때 이며 도시 단위의 전력은 교류회로를 사용하며 전력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KVA는 볼트 암페어(VA)로 교류회로 상에서 전압(V)과 전류(A)가 곱해진 값으로 역률의 값(전류(VA)가 실제로 전력으로 되는 비율)에 의해 실제 유효전력(W) 값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전동기나 변동기에 따라 역률 값은 변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W의 값을 구할 수 없어, 본문에서는 편의상 VA(KVA)로 표기하였습니다.〉

선월하이파크단지 공공시설 용지계획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공원 광장 녹지 하천	274,822	46.2	
학교 및 유치원	54,376	9.1	
도로 및 주차장, 공공공지 (公共空地)	239,214	40.2	
공공청사	10,349	1.8	
오수중계 펌프장	1,160	0.2	
기타	14,862	2.5	(문화·방송시설, 종교시설, 주유소)
소계	594,783	100	

글 홍보마케팅팀

인근지역의 U-City사례로 알아보는 선월하이파크단지의 스마트 서비스 도입 가능성

선월하이파크단지에도 스마트 바람이 불 수 있을까?

스마트 서비스는 도시 안에 교통, 안전, 시설관리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그렇다면 선월 하이파크 단지의 조성계획을 살펴보고, 어떤 스마트 서비스가 도입 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계획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주거공간과 편의시설을 건설하는 것 이외에, 단지 안팎으로 위치하는 피봉산(138m), 안산(121m), 배부락산(103m), 옥녀봉(100m)과 같은 구릉지역을 활용하여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들기 위한 환경조성에 힘쓸 예정이다. 이 구릉지역을 조망하는 조망축을 설정하고, 이 조망축을 기준으로 건축물 배치에 대한 규제를 설정하여 단지 내부 환경이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계획 중이다. 그리고 보행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가로공원, 쌈지공원 등의 열린 공간과 녹지를 형성해, 선월하이파크단지 전체에 그린네트워크를 조성한다. 또한 신대배후단지에서 이어지는 하천을 활용하여 천수공원으로 조성하고, 하천변에 보도, 가로등, 벤치 등의 조형물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수변을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인다.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신대배후단지의 도심공원과 연계한 자연환경의 조성뿐만 아니라 단지 인근의 주요 역사자원인 검단산성과 충무사, 순천왜성을 하나로 연결하는 역사길을 조성하여 선월하이파크단지만의 독보적인 문화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리고 도시 내부의 상업 및 업무시설 건축물들을 낮게 디자인하도록 유도하고,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에는 초목과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보행자들의 통행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로는 보행자전용도로로 조성하고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도입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예정이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는 스마트시티 적용 가능성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연, 역사유적, 도시 등 다양한 요소들이 모여 단지 내부의 경관을 조성할 예정이다. 도시 내부의 모든 것들이 그러하듯, 경관요소 또한 조성이 완료되면, 지속적인 관리를 필요로 한다.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아직 조성 계획단계에 있으며, 스마트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아직 확정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선월하이파크단지에 스마트 서비스가 적용된다면, 보다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이며, 많은 요소로 이루어진 경관요소들과 시설물 등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기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는 인근 지역의 사례를 통해 선월하이파크단지가 U-City 기술과 스마트 서비스가 연계되는 경우 어떠한 편의가 제공될지 알아보도록 한다.

스마트 시티 기술을 이용한다면 선월단지 내에 조성될 녹지와 수목, 하천과 같은 자연요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여수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U-오동도 생태관광서비스 구축사업은 여수 오동도 내부에 생태관리 서비스, 생태체험 서비스, 안전공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오동도 내부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고, 수목과 같은 자연환경을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오동도에 구축된 U-서비스 응용한다면 선월하이파크단지 내 조성될 공원에 안전공원 서비스를 접목하여 공원의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공원을 이용하는 거주민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공원안전 외에도 거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시스템 도입이 가능한데, 이러한 사례는 광주 수완지구 및 신창지구에서 추진 중인 U-타운사업에서 찾아볼 수 있다. U-타운은 주민의 편리한 생활과 안전관리 부분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적용하는 사업이다. 이는 U-Home, U-안전관리 크게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구분되는데, U-Home은 취약지역 영상감시와 주차장, 조명 등과 같은 시설물 관리, 홈 네트워크 등으로 U-안전관리는 안전한 통학로 조성, 안전한 귀가서비스, 불법 주정차 단속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선월단지 내부의 시설물 및 환경 관리에 적용한다면 관리 시스템을 통해 차량 이용자의 주차를 돕고, 불법 쓰레기를 단속하여 더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의 편안한 생활을 보장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에게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게 하여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 밖에도 U-타운과 관련한 또 하나의 사업인 U-러닝은 전자적 수단과 정보통신 및 전파, 방송 기술을 활용해 이뤄지는 e-러닝기반의 학습을 확장하여,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업이 가능하게 하는 스마트시스템 구축 사업인데, 이는 지역에 유치를 추진 중인 국제교육기관에 적용하여, 향후 재학할 학생들에게 해외 현지와의 연결을 도와 다양한 환경에서의 교육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 시티 조성에는 단계적인 구축이 중요시되고 있다. 단기간에 스마트 서비스 시스템을 완성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어려운 일임은 분명하다. 그렇기에 스마트 시티 이전의 단계라고 여겨지는 U-City 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향후 이루어질 스마트 시티 구축의 초석이 되어 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 아직 선월하이파크단지 내에 이루어질 스마트 서비스나 U-City 기술의 도입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 그러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감지하고, 변화의 방향성은 물론 우리가 사는 곳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을 발전시키는 첫걸음일 것이다.

〈참고문헌 : 김향집, 조상필, '광주·전남의 스마트시티 구축 전략', 『광주전남연구』, 광주전남연구원, 2017, 특집 4호〉

글 홍보마케팅팀

그간의 추진경과로 알아보는 선월하이파크단지 주요현황

광양만권의 명품택지로 거듭날 선월하이파크단지의 행보



선월하이파크단지 주요 사업추진 경과

선월하이파크단지는 신대배후단지와 함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배후단지 조성을 통해 투자유치를 지원할 목적으로 2003년 10월 30일 지정되었다. 그리고 2009년 5월 27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확대와 부분적인 개발계획 변경을 위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 승인안」이 지식경제부(現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되어, 개발 수요가 미약한 점 등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2단계 개발사업 지구에서 3단계 사업 지구로 변경되어 2020년까지로 개발 완료시기가 조정되었다.

선월하이파크단지 투자협약 과정

광양경제청은 선월하이파크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를 찾기 위해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2012년 12월 1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환경설명회를 가졌는데, 이날 설명회에는 롯데자산개발, 에이플러스에셋 등을 포함한 다수의 개발사업 투자기업도 참가하여 선월하이파크단지를 비롯한 광양만권 전체의 구체적인 투자여건 등을 문의하며 광양만권의 성장가능성에 대해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율촌, 세풍, 황금산단과 같은 광양만권의 우수 산업단지의 개발과 함께, 그 배후도시로서의 가치가 기대되는 선월하이파크단지의 성공적인 조성은 투자여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에 대한 투자 가능성을 높게 샀다. 그 후 2012년 진행된 공모절차를 거쳐 중흥건설(주)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다. 2012년 7월 전라남도, 순천시, 광양경제자유구역청, 중흥건설(주) 등이 참석하여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자리에서 중흥건설(주)는 선월지구가 지역의 명품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현재 중흥건설(주)는 2,638억 원을 투자하여 선월하이파크단지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순천시 등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연내 실시계획을 승인받을 계획이다.

주민들과의 소통

한편, 광양경제청은 선월하이파크단지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민원해결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이에 2018년 3월 해룡면사무소에서 주민대표와 해룡면장 등 7명이 참여하여 제1차 이동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선월하이파크단지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주민들의 깊은 관심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월하이파크단지 사업에 신대천 관련 개발에 의한 퇴적물, 침수, 흙탕물 피해 방지 대책요망 등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현지 답변과 처리계획들을 통보하였다. 이날 열린 이동민원실 운영으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주민 간의 갈등과 민원, 궁금증을 일부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광양경제청은 선월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영향에 대해 주민들의 이해를 먼저 구하고,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선월하이파크단지 교통처리계획

신대배후단지는 편리한 교통으로도 유명하다. 그렇기에 신대배후단지와 연계하여 개발되는 선월하이파크단지 역시, 우수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원활한 교통흐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 선월하이파크단지의 내부 도로망 등 도로계획을 살펴보고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도로 등의 교통처리는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주간선도로라고 한다. 선월하이파크단지에는 신대배후단지와 연결되는 주간선도로와 세풍산업단지에서 광양읍으로 연결되는 주간선도로를 폭 30~35m로 계획하여 단지 외부와의 원활한 교통소통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조간선도로는 주간선도로에서 분기되어 각 생활권으로 이어지는 교통을 처리함으로써 주간선도로를 보조한다. 집산도로는 통행의 종점인 주거지나 각종 시설물과 접속되는 도로를 보조간선도로와 연결함으로써 다른 도로로부터 모이는 교통을 처리하며, 순환형, 격자형으로 계획되어 주거, 상업, 공공시설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 단지 내부만을 순환하는 국지도로는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그리고 각 필지로의 접근 도로망 구성하며, 도로의 폭은 단독주택용지 내 도로는 폭원 8~10m, 근린생활시설용지 내 도로는 폭원 10~15m로 계획하여 원활한 차량통행을 유도한다.

또한 단지 내 보행로의 폭을 최소 2m이상으로 조성하여 차량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며, 보행단절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 동선의 단절이 없도록 보행체계를 구축한다. 그리고 주요 교차부에 보도턱을 낮게 설정하여, 교통약자를 배려한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지구 내 순환형으로 조성한 생태회랑(폭 30m)을 활용하여 보행자 및 자전거도로를 계획함으로써 신대배후단지와 연계되는 순환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개별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 수요에 따라 법정주차대수인 7,673대 이상을 확보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차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업시설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단독주택용지 주변에 노외주차장을 분산하여 배치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지정 (재정경제부 – 現 기획재정부*) : '03.10.30.
  *경제자유구역 지정 고시권 : 재정경제부 → 지식경제부(現 산업통상자원부, 2008)
- 개발계획 변경 승인(現산업통상자원부) : '12.12.17.
  – 신대·덕례배후단지를 광양복합·웰빙·신대휴먼·선월 단지로 분할
- 사사업시행 세부협약 체결(GFEZ↔중흥건설) : '16. 6.15.
-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 '16. 6.23.
- 개발계획 변경승인 고시(산업통상자원부) : '16.11. 7.
-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중흥건설→ GFEZ) : '17. 8.18.
-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요청(10개 기관 24개항목) : '17. 8.22.
- 실시계획 관계기관 협의추진 : '17. 8.~

글 편집실

경우에 따라 달라지는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외국인 투자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1)]



1. 조세지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단, 국내 거주자의 해외 우회투자 지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한다. 세제지원은 외국인 투자비율과 감면대상, 과세기관의 해석에 따라 감면 기간 및 감면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1) 국세(법인세·소득세) 감면

1) 7년간 감면(최초 5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구 분	투자여건 등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 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할 것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합중국 화폐 2백만 달러 이상일 것
입주기업으로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사업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개별형) 등)	· 제조업 : 3천만 달러 이상 / 관광·휴양업: 2천만 달러 이상 · 시스템통합·관리, 자료처리 등 : 3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1천만 달러 이상 / SOC : 1천만 달러 이상 · R&D : 2백만 달러 이상 / 공동사업 : 3천만 달러 이상

※ 감면 한도액은 외국인투자비율과 고용인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액기준(외국인투자금액X50%) + 고용기준(외국인투자금액X40%(신성장동력50%))

2) 5년간 감면(최초 3년간 100%, 다음 2년간 50% 감면)

구 분	투자여건 등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 제조업 : 1천만 달러 이상 · 엔지니어링, 시스템통합·관리 등 : 1천만 달러 이상 · 관광·휴양업 : 1천만 달러 이상 / R&D: 1백만 달러 이상 · 물류업 : 5백만 달러 이상 / 의료기관: 5백만 달러 이상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 투자금액이 3천만 달러 이상 투자 또는 외국인투자비율 50% 이상으로서 총 개발사업비가 5억 달러 이상인 경우
외국인투자지역 (단지형) 입주기업	· 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
기타 조세감면이 불가피한 사업	· 제조업: 1천만 달러 이상 / 물류업: 5백만 달러 이상

※ 감면 한도액은 외국인투자비율과 고용인원에 따라 결정됩니다.
금액기준(외국인투자금액X40%) + 고용기준(외국인투자금액X30%)

(2) 지방세(취득세·재산세)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대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인세의 감면기간과 동일하게 세액감면을 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모두 사업개시일부터 3-5년간은 당해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의 100%, 그 다음 2년간은 50%를 감면한다. 단, 과세대상 재산을 사업개시일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조세감면 결정을 받기 전에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 받을 수 없다.

(3) 관세 등 면제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본재로써,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해 외국인투자 신고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 관세 등이 면제된다.

관세 등의 면제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자본재에 한해 적용되며, 다만 공장설립승인의 지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면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모두를 면제하며,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입주 외투기업, 자유무역지역 입주 특정 기업, 경제자유구역 입주 외투기업,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시행자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제주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시행자 등 해당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한다.

(4) 조세감면 신청절차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
→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조세감면신청 → 조세감면여부 결정
→ 조세감면 여부 결정통보

① 조세감면 대상사업 사전확인 신청
- 확인방법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해당되어야만 신청 가능

②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 주무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팀
- 수탁기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투자종합상담실, 외국환은행

③ 조세감면신청
- 신청기간
  i) 신규·증자 : 당해 감면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까지 준함
  ii) 변경 : 변경사유일로부터 2년 이내
- 구비서류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3부, 조세감면 신청서 3부, 신성장동력산업기술증명자료 3부

④ 조세감면여부 결정
-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 결정방법 : 기획재정부 장관이 신청기술 관련 주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결정, 조세감면 결정의견이 일치할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을 결정함

⑤ 조세감면 여부 결정통보

2. 현금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당해 외국인투자의 신성장동력산업기술 수반 여부 및 기술이전효과, 고용창출규모, 국내투자와의 중복여부, 입지지역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외국인에게 공장시설의 신축 등, 정해진 용도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 신성장동력산업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제조업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장을 말 함)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재·부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고 아래 "소재·부품산업 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소재·부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3. 입지지원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고 유치하기 위한 입지지원 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외국인 투자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경제자유구역 등이 있다. 이중 외국인투자지역은 단지형, 개별형, 서비스형으로 분류된다. 외국인투자 입지제도는 지정목적에 따라 입주자격, 유치업종, 투자 인센티브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장설립인허가 절차가 용이한 계획입지라 할지라도 투자입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제도에는 예외 사례 등이 많으며,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KOTRA) 투자종합상담실(전화 : 02-1600-7119 / 홈페이지 : www.investkorea.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규정·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사이트 상단에 검색창에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등을 검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관련 광양경제청으로 문의를 원하시는 경우 투자유치1·2단(061-760-5543 또는 5632에서 언제든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김재홍, 외국인투자가이드, KOTRA, 2017 참고〉

글 송명석 인터뷰 김명석 과장

중흥건설이 바라보는 선월하이파크단지의 미래

선월하이파크단지의 내일을 만들어 가는 중흥건설의 이야기

Q1__ 중흥건설은 선월하이파크단지 개발 이전에, 신대배후단지 개발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처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주관하는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에 다시 사업시행사로 나서게 된 배경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희 중흥건설은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으로 회사의 기술개발 및 성장에 발판을 마련하였고,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미래가치를 예상하였습니다. 이에 2011년 선월하이파크단지에 대한 사업자 공모에 참여하여, 2016년 6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다수의 단지조성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배후단지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지역 전반의 투자가치 제고를 위해 주변 신대배후단지와의 연관성 및 주거효율, 나아가 분양계획까지 고려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투자자 분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선월하이파크단지 조성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향후 신대배후단지를 개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행착오 없는 개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Q2__ 선월하이파크단지의 당초 개발의도 중 하나인 외국인 근로자, 투자자와 같은 외국인 거주자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에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간별 체류를 위한 외국인 주거시설은 향후 수요에 따라 주변 배후단지와 연계하고, 인접 신대배후단지내 외국인학교 및 의료시설을 이용할 뿐 아니라 단지 내 상업시설, 근린생활시설용지에 입지되어지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기업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의 공급에 관해서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별도 협의할 계획입니다.



Q3__ 선월하이파크단지가 성공적으로 조성됐을 시, 중흥건설이 바라보는 기대효과는 무엇입니까?

친환경 주거단지가 조성되어 주변지역 및 신대배후단지와 연계한 기반시설과 녹지체계를 구축하여 도시의 연속성을 유지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거, 상업, 교육, 문화, 여가 등 복합기능 유치로 배후주거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뿐만 아니라, 단지를 벗어나지 않더라도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 유치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는 분양이 완료된 산단 이외에도 현재 개발중인 산단이 여럿 있어 향후 이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함으로써 우리지역으로의 이주가 늘어 인구가 증가하고, 궁극적으로 이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발전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4__ 선월하이파크단지를 조성하면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바라는 점은 무엇입니까?

2015년 저희 중흥에서는 선월단지 안에 대형유통업체의 입주를 위해 전체면적의 3.4%가 배분되었던 일반상업용지를 8.4%로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광양경제청과 쟁점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광양경제청, 순천시 등을 비롯한 여러 기관의 의견과 지역민들의 정서 등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기존 계획대로 일반상업용지는 3.4%만 배분하는 것으로 광양경제청과 원만하게 합의하였습니다. 현재는 실시계획 승인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및 공공하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광양경제청 및 관련기관에 자문을 구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진행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향후 광양경제청과 함께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상호간 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아내어 유기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모두에게 행복을 전하는 주거단지인 선월하이파크단지가 완성되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광양경제청의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Q5__ 최근 스마트 서비스를 기반으로 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사업이 주거산업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혹시, 선월하이파크단지를 조성하면서, 이러한 스마트 서비스를 접목하거나 염두에 두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최근 저희 중흥건설은 LG유플러스사와 IoT 시스템 구축 협약을 맺고, 중흥건설이 공급하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 홈 IoT 플랫폼 구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 중흥건설은 LG유플러스사와 함께 세종시 등에 공급하는 신축 아파트 단지에 홈IoT 플랫폼 구축과 함께 실외 IoT 공기질측정기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IoT 공기질측정기에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온도, 습도, 소음과 유해물질을 감지하는 총 5개 센서와 통신모듈이 탑재되어, 유해물질의 측정값을 고객의 스마트폰과 PC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입주민분들이 개별 구매하는 IoT 공기청정기를 실내 IoT 공기질알리미와 연동하여, 내·외부 공기상태 비교를 통한 환기시점 및 환기불가여부 알림, 공기청정기 작동 등 토털 공기질 케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 중흥건설이 선월하이파크단지 택지개발 사업에 이어 공동주택 개발 사업에도 참여하게 된다면, 위와 같은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외의 접목될 수 있는 기타 다른 안전, 편의 서비스가 있다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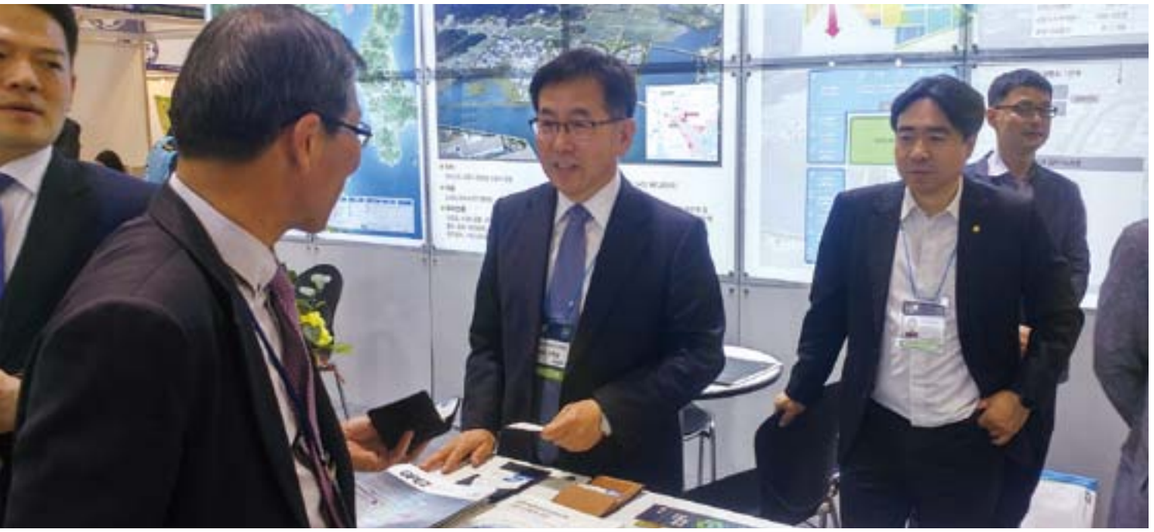
Q6__ 마지막으로 향후계획과 다짐, 그리고 이 밖에 기타, 하시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번 선월하이파크단지의 성공적인 개발이 저희 중흥건설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나아가 이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월하이파크단지가 친화경적인 명품 단지로 거듭나, 향후 택지개발사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편집실

2018년 상반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의 투자유치 활동

무술년도 벌써 상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가 시작되었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올해도 변함없이 투자유치 활동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올해 초, 1단계 부지공사를 마친 세풍산단은 기능성화학클러스터와 외국인 전용단지의 이점을 내세워 이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에 각고의 노력을 쏟고 있다.



국내 투자유치 활동

광양경제청은 4월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뿌리산업전시회에 참가하여 세풍산업단지의 원활한 투자유치를 위해 홍보부스 운영 등 각종 활동을 펼쳤다. 이에 전시회 참석기업을 대상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과 세풍산업단지에 대한 포럼 발표와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광양만권과 세풍산단을 널리 알리는 계기로 투자유치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리고 5월 3일 여수산단 중소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합동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 투자설명회는 여수국가산단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을 광양만권으로 모으고, 아울러 여수국가산단 중소업체의 1·2차 협력업체와 신규투자업체 정보를 확보할 목적으로 개최 되었으며, 또한 이 업체들의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할 투자유치 전략으로 해당 기관과 협회의 협력 하에 이번 합동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광양만권경제구역 인근에 소재한 여수국가산단 중소기업 경영자들에게 광양경제청이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세풍산단과 율촌1산단의 분양내용과 투자여건을 직접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지역경제와 광양만권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유치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였다.

5월15일 전남대 여수캠퍼스에는 '여수 석유화학 융합소재 미니클러스터' 회원사를 대상으로 올해 두 번째 합동



투자설명회를 이어갔다. '여수 석유화학 융합소재 미니클러스터'는 산업 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업체 대표자들의 소그룹 네트워크로 한국산업단지공단 여수광양지사와 연관된 단체이다. 이날 열린 합동 설명회를 통해, 지역의 기관·단체·기업이 협력하여 지역경제와 광양만권의 활성화를 위해 도움을 주고, 여수 석유화학 융합소재 기업들의 신규투자 또는 1·2차 협력업체의 투자정보를 적극 공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이번 설명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세풍산단과 율촌1산단의 분양내용과 투자여건을 적극 설명하여, 세풍산단과 율촌1산단의 저렴한 부지 임대가 등의 두 산단의 이점과 경쟁력을 홍보하는 기회를 가졌다.

해외 투자유치 활동

광양경제청은 지난 4월 후쿠오카와 호쿠리쿠, 도쿄 일원에 위치한 석유화학, 합성수지, 플라스틱 등과 같은 기능성 화학 및 식품가공업 분야의 투자 유망기업들을 방문하여 맞춤형 상담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경제 단체들을 초청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광양만권의 산업 인프라를 소개하고 세풍산단의 기능성화학클러스터와 외국인전용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일본기업의 한국투자에 대한 투자 동향과 잠재적 발굴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의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방문상담을 진행했던 기업 중 일부가 광양만권 내에 투자 가능한 지역을 검토하고 부지에 대한 현장 시찰을 추진하겠다는 의향을 밝혔으며, 업무협의를 진행한 경제단체 관계자들은 향후 광양만권에 투자를 희망하는 일본기업 발굴에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광양경제청의 일본 투자활동은 한·일 기업 비즈니스 매칭을 통한 화학, 소재·부품산업의 유치 가능성을 열었으며, 일본기업의 한국 투자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중국에서의 투자유치 활동은 3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먼저, 3월에는 선양, 잉커우, 다롄, 르자오, 칭다오 지역의 가공식품, 친화경 농산물, 물류, 유통업 등의 식품 관련 산업 분야의 잠재적 투자기업을 방문하여 광양만권 투자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다. 또한 식품관련 기관과 협회를 방문하여, 한·중·일 FTA체결에 대비한 세풍산단 내 3개국의 식품전용 시범협력단지구축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현재 광양만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국기업의 모델을 소개하며, 이와 유사한 모델로 비지니스가 가능한 기업이 선례를 참고하여 광양만권으로 투자가 가능하도록 기관에 홍보 협조를 요청하여, 향후 중국의 식품관련 협회와 기업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광양만권 현장시찰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중국외교부, 공업통신부 등 중국 내 여러 기관 및 협회와 유엔(UN) 산업개발기구 등의 국제기관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세계제조산업 컨벤션 등의 행사에 참가하여 중국이 과거 단순가공 기반의 하도급 공장에서 탈피하여 '중국제조 2025' 실현을 위한 디지털·스마트 기반 첨단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중국의 제조업 환경 변화를 우리 광양만권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안휘성에 위치한 기업에 개별 방문하여 투자상담을 실시하였다.

한편, 광양경제청은 순천 신대배후단지의 외국인 교육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5월 싱가폴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S학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S학교는 싱가폴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캠퍼스를 두고 있는 글로벌 학교로, 영어, 중국어를 기본으로 학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지역에 캠퍼스를 유치한다면 향후 우리지역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현장 점검과 임원진 면담을 통해 S사에 대한 이모저모를 더 파악하여 투자유치로 한 발짝 더 가까워지는 기회를 가졌으며, 싱가폴과 인도네시아 현지의 다른 학교들을 시찰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국제적 교육과정을 통해 투자 잠재력을 확인하고, 향후 다양한 교육기관이 우리 지역으로의 진출을 고려하도록 지역 투자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였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대표 제조산단, 율촌산단 근황

포스코 ESM 율촌산단에 1조 천억 원 규모의 투자 추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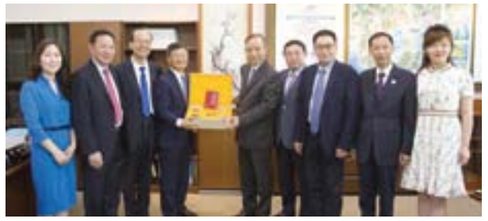
지난 5월말 포스코 ESM은 율촌1산단 약 5만평 부지에 1조 천억 원의 규모의 이차전지 소재인 양극재 생산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광양경제청과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포스코 ESM측은 경제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율촌1산단을 사업부지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광양만권에서 1천여명에 이르는 인원 고용 및 연관 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율촌1산단의 26년 조성역사가 건설지를 통해 세상에 전해질 전망이다. 이 건설지는 산단조성 과정의 어려움을 이겨낸 노하우를 생동감 있게 담아 앞으로 개발되는 산단조성사업의 모범사례로써, 대안을 제시, 공유하고자 한다. 건설지는 율촌1산단 조성공사에 참여한 공무원과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2018년 8



월 발간된다. 또한 광양경제청에서는 율촌1산단의 분양이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산업용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발 중인 율촌2산단과 관련하여, 4월 18일 공사 관련 전문가 등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하여 「율촌 제2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해양공사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 · 안전사고 부분에 대하여 깊이 있는 점검을 실시하였다.

광양 세풍산단,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외자유치 활성화로 기능성 화학소재 중심지 발돋움 기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산단이 지난 6월 14일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고시되었다. 세풍산단을 '기능성 화학소재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 세풍산단 '외국인 투자지역 관리 기본계획'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승인된 것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총 246억원을 들여 단지 내 82,641㎡를 매입하여 향후 ㎡당 매월 249원(평당 연간 9,857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50년을 임대하게 된다. 입주한 외국인 기업에는 5년간 법인세 또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혜택이 주어져, 향후 광양만권의 외국인 투자유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투자유치 호재에 탄력 받아 6월 중국 연태시의 일대일로위원회와 식품기업인들이 세풍산단의 현장을 시찰하였으며, 광양만권의 우수한 산업인프라와 세풍산단의 투자환경에 관심을 보여 향후 직접적인 투자실현을 위해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저렴한 부지의 제공을 통해 기업의 초기비용을 낮춰 외국인 투자기업의 입주를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이 광양만권에 입주하여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나아가 전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무분별한 개발이 아닌, 환경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GFEZ

친환경적이고 쾌적한 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GFEZ의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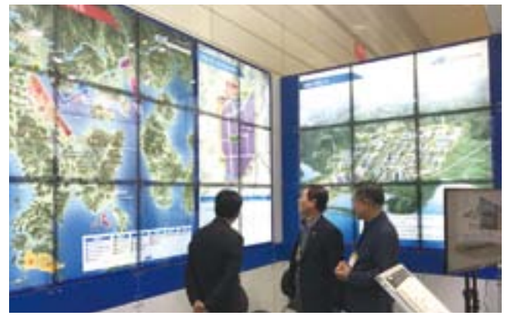


'율촌제1산업단지 내 폐기물매립시설 사후환경영향조사' 중 여수시 율촌면 조화리 연안주변에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된 법정보호종 '흰발농게'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조화리 연안에서 멸종위기야생생물 '갯게'는 꾸준히 발견되었으나, '흰발농게'의 확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수질개선을 위해 배출사업장 점검 등과 같은 광양만청의 여러 노력이 빛을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법정보호종 확인 및 서식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4월 20일 율촌1산단 내 유휴부지에 율촌 · 해룡산단협의회와 합동으로 꽃밭 조성을 위한 꽃씨 파종행사를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광양만청 관계자와 입주기업 대표, 인근 주민 등 60명이 참석하여 율촌산단 내 부지 1507.7㎡에 순천시와 광양시로부터 분양받은 코스모스와 해바라기 씨를 파종하였으며, 7월에는 해바라기가 8월에는 코스모스가 개화할 예정이어서, 자칫 삭막할 수 있는 산단에 한 줄기 휴식의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018 창원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 참가 홍보

하동 대송산업단지 및 광양 세풍산업단지 투자유치를 통한 광양만권 활성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하동사무소는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14회 2018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에 참가하여 하동지구 대송산업단지 및 광양 세풍산업단지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를 실시하였다. 창원 국제자동화정밀기기전'에는 자동화기기·모션컨트롤전, 금속가공기계전, 부품소재 뿌리산업전, 4차 산업 관련 특별전 등에 196개사가 참가해 총 472개 부스를 운영하였다. 하동사무소는 투자유치본부, 하동군, 대송산업단지개발(주)와 공동으로 홍보부스를 개설하여, 하동 대송산업단지와 더불어 광양 세풍산업단지 등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대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적극 실시하여 잠재 투자기업 5개사를 발굴하였으며, 추후 지속적



인 관리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실질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글 홍보마케팅팀

기업의 인력난과 지역 내 구직자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나아가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GFEZ 지원시책

GFEZ 입주기업 인력난의 해결책, 기업 맞춤형 One-Stop 인력양성 사업



현재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의 율촌산단은 금속, 기계, 전기, 전자 관련 중소기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율촌산업단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단 내 기업은 전기용접, 전기실무, 기계정비, CAD와 같은 분야의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인력수요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 맞춤형 One-Stop 인력양성 사업을 통하여 율촌산단 내 기업이 원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산단 내 기업들의 인력난을 해결하고 지역의 구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나아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전남 동부권 지역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생산 분야의 취업 및 인력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구조 개선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이에 3월 One-Stop 기능인력 양성 사업을 수행할 기관을 공모하여 광양만권일자리산업단이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은 광양시, 광양상공회의소, 한국노총광양지역지부, 광양제철외주파트너사협회 등의 6개 기관과 단체가 협력한 노·사·민·정으로 이루어진 맞춤형 직업훈련기관이다. 2014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전국일자리경진대회에서 최우수 등급과 우수상을 거듭 취득한 우수기관인 광양만권일자리사업단은, 훈련생들을 위한 강의실과 전기, 용접, 기계 등의 각종 실습실과 직접, 교류 용접기와 절단기 등의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으며 직업학교 등의 교육기관 출신의 전문인력과 해당 업계의 실무 경력이 있는 업계 종사자 출신의 전문인력 강사를 보유하고 있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기에 적합하다.

기업 맞춤형 One-Stop 인력양성 사업은 3월부터 5월까지 기관 홈페이지와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사업내용과 교육생 모집 관련 홍보를 진행하였으며, 6월부터 12월까지 총 세 번에 걸쳐, 1~3기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취업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생 훈련과정은 6월부터 1기 과정이 시작되었다. 현재 1기 교육생으로 총 66명이 모집되어 전기용접 및 가스절단(40시간) 기능 양성을 위한 실내교육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기업에 체험학습을 병행하고 있다. 기능인력 양성교육 기간에는 담임전담제를 운영하여, 교육생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성실하게 훈련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체험학습에서는 현장멘토 관리방식을 취하여, 현장실습의 출결관리뿐만 아니라, 현장 실무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습이 가능토록 한다. 또한, 현장적응에 필요한 기업체 정보를 사전에 교육생들에게 제공하여, 체험학습을 진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과 기타 문의사항에 대하여 수시 상담을 통해 교육생들의 편의와 현장 실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다.

7월에 진행될 구인구직 만남의 날에는 개별 상담을 통하여 교육생들의 개인별 취업 진로 방향을 제시하고, 개인별 취업알선을 1년에 3번 이상 실시하여 기업과 교육생에게 알맞은 맞춤형 일자리를 제안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와 같은 취업활동에 관련된 문서작성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취업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그리고 추후에 있을 2기(8~9월), 3기(10~11월) 교육생 역시, 같은 방식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업 맞춤형 One-Stop 인력양성 사업, 왜 중요한가

기업 맞춤형 One-Stop 인력양성 사업은 우수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와 채용약정을 체결하여 교육 수료 후 실습을 마친 훈련생을 해당 기업체에 취업하게 한다. 이러한 사업을 통해 입주기업은 경쟁력 있는 인재들을 고용할 수 있으며, 교육-실습-취업이 하나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고자 한다. 그리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통하여 구직과 구인 활동에 드는 시간을 최소화하며 구인업체와 구직자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희망기업 미스매칭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 맞춤형 One-Stop 인력양성 사업은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직접적인 취업으로 연결하는 혁신적인 모델로, 이를 통해 고용친화적 통합시스템 및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 전라남도 노·사·민·정의 조직적 기반이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전남동부권의 고용구조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도 광양경제청은 인력양성 지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에 귀 기울여 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나아가, 입주기업 뿐만 아니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과 지역민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QUIZ

퀴즈

Q1. 스마트 홈 서비스는 ○○, ○○○, ○○ 등 세 가지 부문에서 가장 큰 성장이 예상된다.
(힌트: 06p. Issue Now)

Q2. 신대배후단지와 연계하여 광양만권의 주거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조성계획 중인 주거 단지의 이름은?
○○○○○○단지 (힌트: 14p. Issue in GFEZ)

Q3.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의 26년 조성역사가 건설지를 통해 세상에 전해질 전망이다.
(힌트: 28p. GFEZ News)

Q4. 기업 맞춤형 One-Stop 인력양성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전문인력 강사와 각종 설비가 마련된 이 인력양성기관의 이름은? (힌트: 30p. GFEZ Info)

QR코드로 참여하는 Quiz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독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퀴즈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퀴즈 참여 및 의견을 남겨주신 독자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이 전달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응모방법
사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의 QR리더기로 스캔하시면 퀴즈에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응모기간 2018년 9월 10일 까지

당첨자 선물

1등 (1명)
백화점상품권 10만원권

2등 (2명)
도서문화상품권 3만원권

3등 (5명)
도서문화상품권 5천원권

READER'S COMMENTS

이 칼럼이 좋았어요!

Issue in GFEZ **고부가가치의 창출, 동북아를 넘어, 미래지향적..**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개념과 해외와 국내의 실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에 따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이 근황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주제가 주제다 보니 다소 딱딱한 느낌은 있었지만, 각 페이지마다 글에 어울리는 이미지를 배치하여 세련된 느낌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광양만권이 더욱 발전하여, 계속해서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문재 독자

Issue Now **급진하는 흐름에 발맞추기**

이번 저널을 읽고 4차 산업혁명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광양만권 역시 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나도 모르게 변화하고 있었다는 걸 이번 계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광양만권의 여행지 같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코너들이 없는 것이 조금은 아쉬웠지만 큰 깨달음을 주게 해신 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독자들에게 광양만권과 세상의 소식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정관 독자

지난호 당첨자

1등 임 * 혁(1308)
2등 김 * 재(0411), 오 * 관(3380)
3등 조 * 라(5619), 김 * 경(5685), 이 * 연(5322), 지 * 종(9100), 오 * 석(4413)

세계 일류의 밸브 제조 전문회사 ㈜엠티에스

경쟁력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당당히 해외시장에 진출하여 Made in Korea의 자부심으로
세계시장에서 빛나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주)엠티에스



MTS(Machinery Technology Solution) 생산 제품

Valve	Butterfly v/v	Welding Type	Concentric Type	Lift Check v/v	Control v/v
Damper	Single Blade	Multi Blade	Tandem		
Special	Cock v/v		3 Lever v/v	Goggle v/v	Water Seal v/v

본사/제1공장 (58035) 전남 순천시 해룡면 율촌산단3로 66
TEL. 061)763-7900 FAX. 061)763-7909
포항사업소 (37685)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로 5번길 6
TEL. 010-4645-7219 **김남영 포항사업소장**
www.mts98.co.kr | E-Mail. mts@mts98.co.kr

MTS CO., LTD

기술경쟁력을 통한 세계적 연구기업 (주)코일렉트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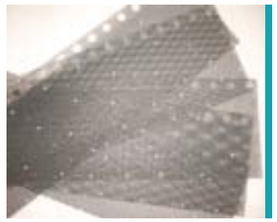
해외에서의 오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수입에 의존하던 고속도금용 전극을 국산화한 ELECTRODE 전문기업입니다.



생산 제품

- 전기도금용 전극 : 주석도금, 아연도금, 동도금 등 강판 및 PCB의 전기도금 시스템 적용
- 해수전해용 전극 : 선박평형수, 발전소 냉각수 등 살균이 필요한 해수의 전해시스템 적용
- 하수/폐수처리용 전극 : COD, 난분해성 유기물, 색도, 부유물질 등을 처리하는 전기분해시스템 적용
- 슬러지 탈수용 전극 : 하수/폐수처리시 발생되는 슬러지의 전기침투탈수시스템 적용
- 오염토양 정화용 전극 : 동전기 원리를 이용한 중금속 오염토양의 정화시스템 적용
- 수처리 살균용 전극 : 차아염소산수 생산을 통한 수처리 살균시스템 적용
- 수소발생용 전극 :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시스템 적용





대표자 고 희 찬 | **설립일** 2006. 03. 29
소재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율촌제1산단 19-46
TEL. 061) 723-8389 FAX. 061) 723-8385
www.koelectrode.com | E-Mail. koel26@naver.com

KOELECTRODE
(주)코일렉트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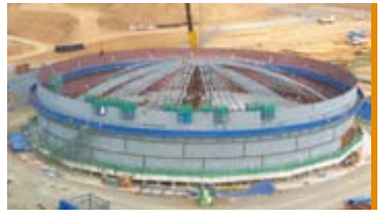
국내를 넘어, 해외로 도약하는 (주)유원산업기술

지능형 원형 저장탱크 멀티용접 자동화 시스템을 활용한 저비용, 고품질, 고객만족이 유원이 추구하는 최우선 가치입니다.



주요 사업

STORAGE TANK (CRT/DRT/IFRT) | SPHERICAL TANK | PORTABLE COLD CUTTING SYSTEM
AUTOMATIC WELDING SYSTEM | PRESSURE VESSEL / DRUM / TOWER | DOUBLE WALL TANK








본사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1로 310-29 (화치동)
율촌사업장 전남 광양시 율촌산단 5로 150
TEL. 061) 920-1472 FAX. 061) 692-2888
www.you-one.net | E-Mail. youone1472@hanmail.net

건설업: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여수 2010-07-08

YOU ONE TECHNOLOGY